



과학으로서의 거시경제학

“과학은 일상적인 사고를 세심하게 재구성한 것일 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본질에 관해 위와 같이 말을 했을 때 아마도 그는 물리학, 화학, 기타 다른 자연과학에 관한 소견을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에 적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타당하다. 경제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때 경제 문제에 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경제학에 관한 일상적인 생각은 정밀하기보다는 겉으로만 보는 피상적일 수 있다(또는 최소한 경제학 과목을 한 개도 수강하기 전이라면 그럴 수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생각을 다듬어서 정치화시키는 데 있다. 이 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1-1 거시경제학자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지난 세기 동안 일부 국가들의 소득이 급격히 증대된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을까? 일부 국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데 반해 다른 국가들의 물가수준은 왜 안정되어 있는가? 모든 국가들은 소득 하락과 실업 증가가 반복되는 후퇴기와 불황을 왜 경험하며 정부정책은 이들의 빈도와 심각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거시경제학은 바로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거시경제학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독자들은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어야 한다. 독자들은 매일 ‘소득 증가 회복’,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로 결정’, ‘불경기에 대한 우려로 주식가격 하락’ 등과 같은 표제를 접하게 된다. 이런 거시경제 현상들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관련된다. 자사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려는 기업 경영인은 향후 소득 증대 속도를 알아야 하며,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되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경제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거시경제 문제가 정치 토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강력한 방법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잘 운용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락한다.

거시경제 문제는 또한 세계 정치의 중심에 있다. 국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곧바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문점을 갖게 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동 통화를 채택했던 것은 바람직하였는가? 중국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미국에 거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빈국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일 경우 이런 문제들은 자주 우선적인 논의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세계 지도자들이 할 일이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설명하는 일은 거시경제학자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학자들은 다른 시기, 다른 국가에 관한 소득, 물가, 실업, 기타 경제변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하려 한다. 거시경제학자들은 별의 생성 발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종의 진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달리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다. 그 대신 거시경제학자들은 과거의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 즉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 이론의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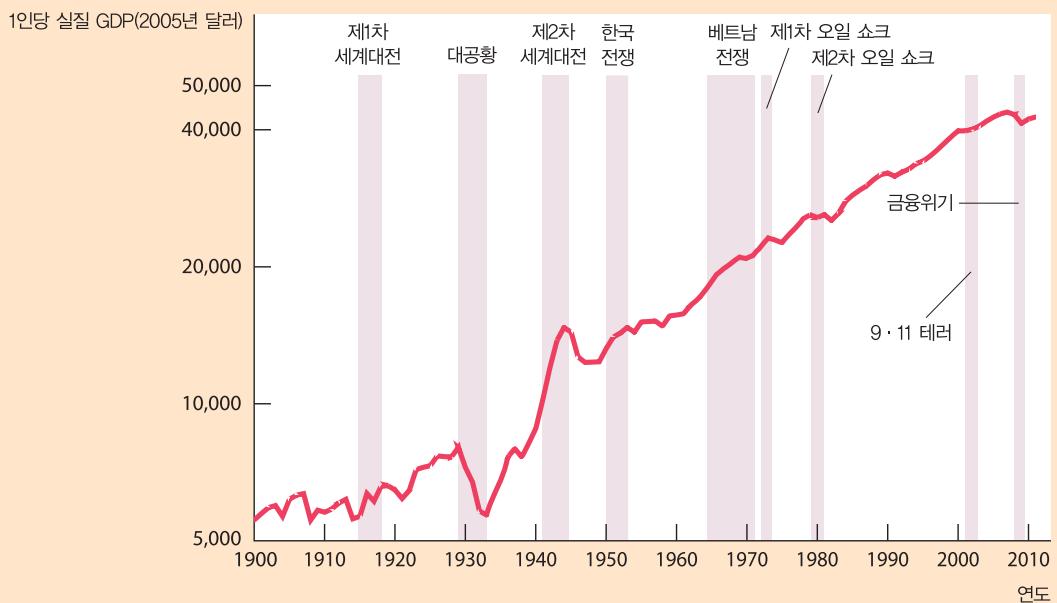
거시경제학은 새롭고 불완전한 과학이다. 경제 상황의 향후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거시경제학자의 능력은 다음 달의 날씨를 예측하려는 기상학자의 능력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학자들은 경제 운용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지식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각 시대마다 특유의 경제 문제를 갖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모두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속수무책이었다. 198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은 잠재워졌으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대규모 연방 재정적자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였다.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1990년대에 미국 경제 및 주식시장은 괄목할 만한 호황기에 있었고, 재정적자는 감소하여 재정흑자로까지

전환되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주식시장과 경제는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조지 W. 부시가 200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을 당시 조세를 감면하였는데, 이는 경제가 후퇴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재정적자를 재현하게 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적 혼란이 극심하였던 2009년에 취임하였다. 미국 경제는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급등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또는 거의 파산에 처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였다. 대공황이 최악이었을 때 취업하려는 네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2008년 및 2009년에 재무성,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기타 정부기관의 관료들은 이런 사태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한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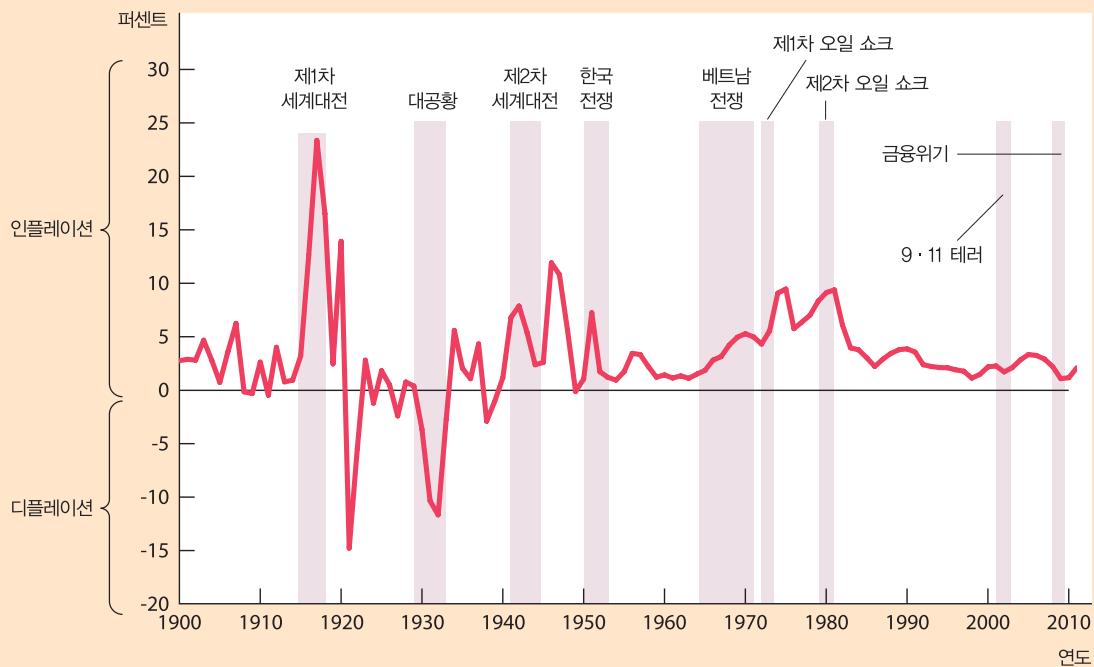
미국 경제의 1인당 실질 GDP

실질 GDP는 일국 경제 내 모든 사람의 총소득을 나타내며 1인당 실질 GDP는 일국 경제 내 대표적인 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 의하면 1인당 실질 GDP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때때로 불경기 또는 불황이라고 불리는 기간에는 감소하기도 한다.

주 : 이 그림에서 실질 GDP는 대수비례척도로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수직축 간격은 백분율 변화와 동일하다. 즉 5,000달러와 10,000달러 사이의 거리(100% 변화)는 10,000달러와 20,000달러 사이의 거리(100% 변화)와 동일하다.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History Services.

그림 1-2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도 대비 평균 물가수준의 백분율 변화를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율이 '0' 보다 큰 경우 물가수준이 상승하며 '0' 보다 작은 경우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지만 '0' 보다 큰 경우 물가수준은 이전보다 완만하게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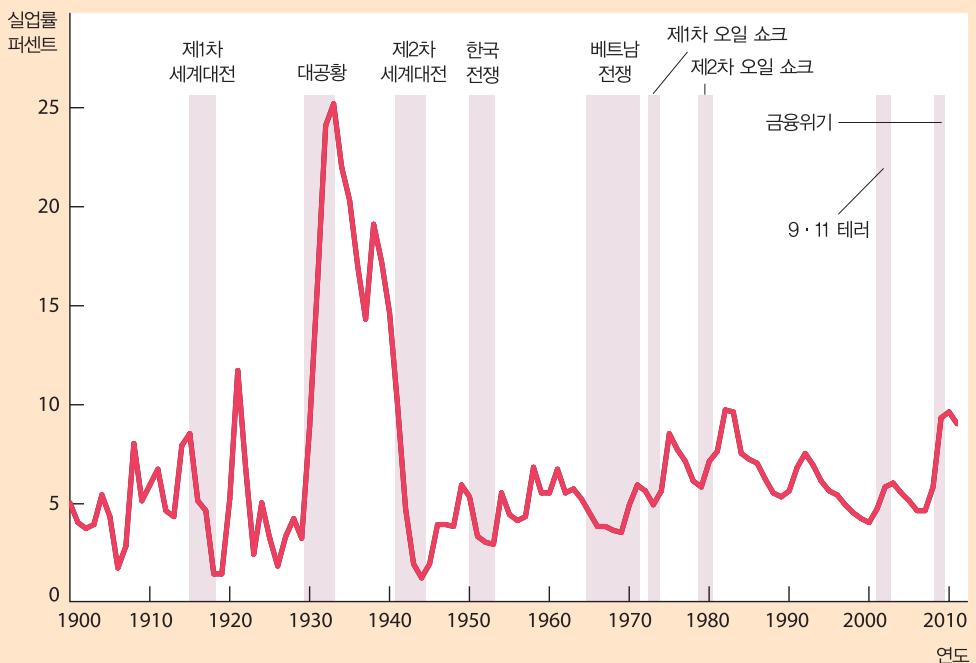
주 : 이 그림에서 인플레이션율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History Services.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들은 성공을 거두어서 실업률이 10.1퍼센트에서 정점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경기 침체는 혹독하였으며 뒤이은 경기 회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었고 시행된 정책들로 인해서 대폭 확대된 정부 부채라는 유산이 남게 되었다.

거시경제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나 거시경제 이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거시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10년 간격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기본 원리를 유연하고 독창적으로 적용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림 1-3



미국 경제의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직업이 없는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 의하면 실업은 언제나 존재하였으며 규모가 매년 변동하였다.

출처 : U.S. Department of Labor and U.S. 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사례연구

미국 경제의 역사적 성과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세 가지 변수, 즉 실질 GDP,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등을 가장 중요시한다. 실질 GDP(real GDP)는 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총소득을 물가수준으로 조절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은 물가의 상승 정도,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직업이 없는 노동자의 비율을 각각 의미한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는지, 어떻게 상호 간에 작용하는지를 연구한다.

그림 1-1은 미국의 1인당 실질 GDP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실질 GDP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대하였으며 오늘날의 1인당 실질 GDP는 1900년에 비해 약